금주의 법구–〈법구경〉
우리의 몸은 마른 섶과 같고
성난 마음은 불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내 몸을 태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1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25일)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만해 스님 영화·뮤지컬 다방면 선양사업 기대

홍성군 · 성북구, 3.1운동 100주년 맞아 전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전개된 3.1운동이 100주년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를 대표하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지자체들의 선양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만해 스님 일대기를 다룬 영화와 뮤지컬 제작, 생가지 개발, 만해로드 순례 등 '만해 한용운' 이라는 인물의 발자취를 더듬는 성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중문화로 만나는 만해 스님

먼저 만해 스님의 출생지인 충남 홍성군은 만해 스님 일대기 영화 제작을 추진 중이다. 영화 제목은 만해 스님의 대표작 시와 같은 '님의 침묵' 이다. 홍성 출신으로서 TV드라마 '토지' 총감독을 비롯해 극영화 '내 나이가 어때서' 감독 등을 맡은 ㈜시네마서울 대표 한명구 영화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영화의 중심인물인 만해 스님 역은 총 4명의 배우가 소화할 예정이다. 아역은 이준서 군, 소년역은 장재원 군이 맡았다. 다만 청년과 성년기는 외모변화가 크지 않아야 관객들의 괴리감을 낮출 수 있어 캐스팅을 조율 중이다. 성년역에는 배우 기주봉 · 안병경 · 홍석연 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만해 스님 모친 역은 '국민엄마' 로 불리는 정혜선 씨가 맡았다. 영화는 지난달 홍성군 만해 스님 생가지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으며 이르면 광복절, 늦어도 올해 개봉을 목표로 한다.

한명구 감독은 1월 23일 본지에 "오래 전부터 동향출신의 독립운동가인 만해 스님 일대기를 영화로 제작하고 싶었다"며 "만해 스님 고증을 위해 생가와 만해기념관, 백담사 등을 방문하며 자료를 모았다. 2월 중 제작발표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영화 제작비는 홍성군뿐만 아니라 만해 스님의 발길이 닿은 인제군(출가지 백담사), 고성군(수행지 건봉사), 서울 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 · 성북구(입적지 심우장)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함께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성군은 이와 함께 만해 스님 탄생 140주년을 기념하고자 2억 원을 들여 뮤지컬 제작에도 나선다. 한국음악협회 충남지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제작을 마치고, 8~10월 광복절과 홍성역사인물축제 등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2021년까지 5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한용운 생가 야외전시공간 조성사업' 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가 옆 만해문학체험관 아래쪽에 심우장 · 서대문형무소 등 만해 스님과 관련된 장소를 20분의1 크기로 줄여 전시하고, 만해 스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꽃과 나무를 중심으로 조경해 생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아울러 기미독립선언 기념비 건립사업을 통해 만해 생가터에 독립선언비를 세워 독립운동의 정신과 만해 스님의 사상을 계승하는 데 힘쓴다.

심우장 국가문화재 지정 기대

서울 성북구는 지난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만해 스님의 유택 '심우장' 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승격 심사결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1차 심사는 마쳤으며, 문화재청의 2차 심사만 남았다. 성북구는 앞서 심우장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해 약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문화재 지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화재청의 심사결과는 2~3월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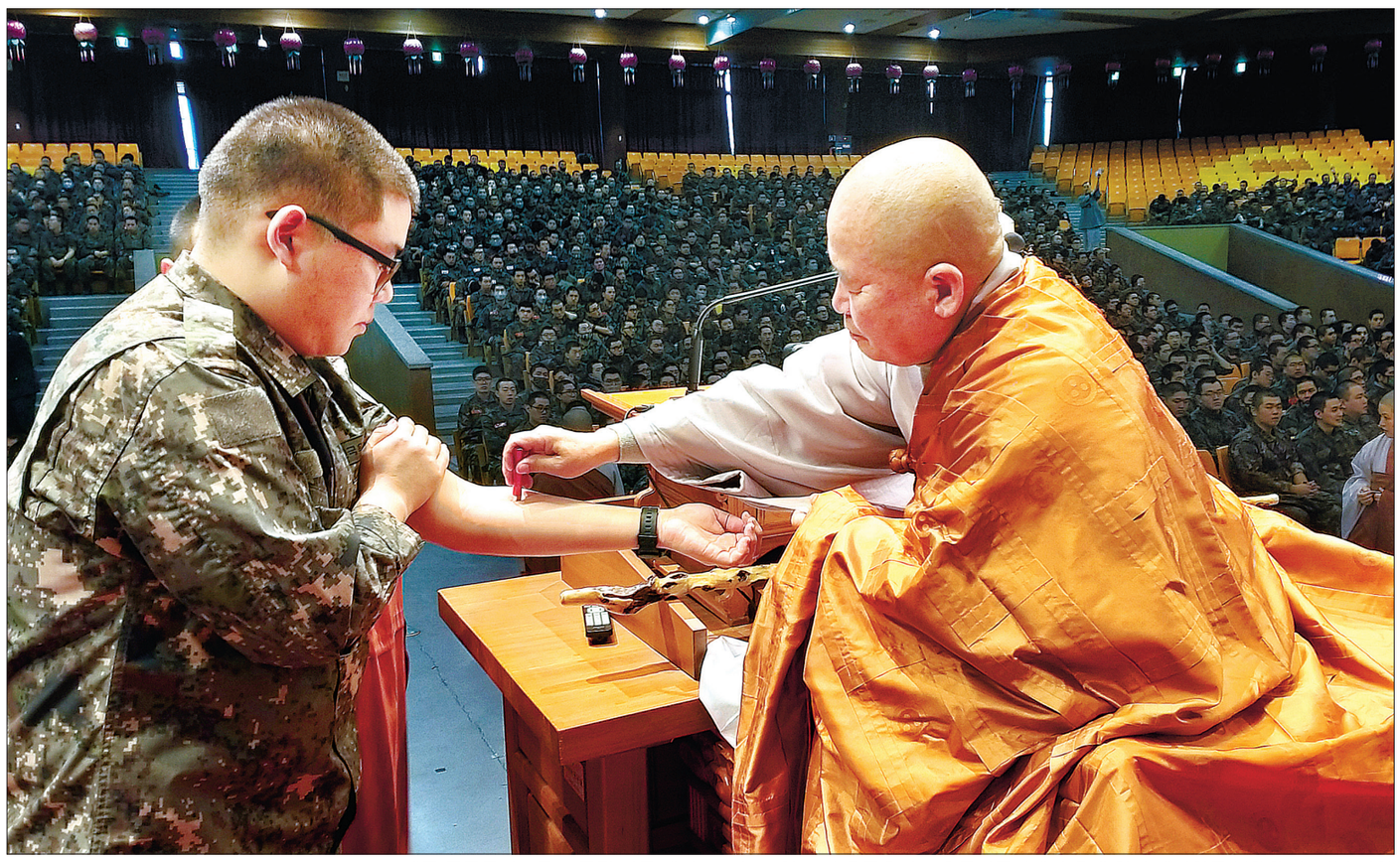
성북구는 심우장이 국가문화재로 승격되면 국고지원사업을 신청해 심우장 일대 10필지(약 530평)에 걸쳐 '만해 한용운 기념관 및 독립공원 조성' 에 나설 방침이다. 기념관에는 문학관과 도서관 등이 들어서 만해 스님의 정신을 재조명하고, 현재의 만해산책공원부터 심우장까지 이어지는 독립공원을 조성해 근 · 현대 역사문화 허브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성북구는 지역출신 독립운동가가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선양사업이 계획되고, 만해 한용운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며 "3월 1일에는 구청 앞 바람마당에서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북구는 6개 지자체가 모여 조직한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와 함께 오는 8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9 만해로드 대장정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진 만해로드는 동국대 만해연구소가 주관하며, 40여 명의 대학생과 2박3일간 만해 스님의 출생과 문학, 독립운동, 수행, 입적 등과 관련된 유적지를 돌아보는 행사다.

영화 '님의 침묵' 촬영 시작
'토지' 한명구 감독 메가폰
2월 중 제작발표회서 소개

만해 스님 생가 주변 개발도
관광객 위한 전시 · 공원 조성
대학생 '만해로드' 8월 개최



佛心과 함께 활기찬 군생활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월 19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올해 첫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서는 2200여 장병이 오계를 수지하고 참된 불자로 다시 태어났다. 군종특별교구는 이날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17회 논산육군훈련소 수계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이 수계사로 장병대표에게 연비하는 모습. **글=노덕현 기자, 사진=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회성 정사 "시대 맞는 '새불교 운동' 전개"

진각종, 신년기자회견서
37개 종책 과제 발표해

스리랑카 · 네팔 교육 불사 추진
〈진각교전〉 올 연말에 재발간
위성도시에 심인당 4~5곳 신설



"정신 문화를 선도하는 불교의 가치철학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교입니다. 특히 진각종은 내세보다 현세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현세의 정화와 안락을 강조합니다. 그러다보니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표방하며 이를 주요 방편으로 교화 활동을 펼치죠. 그런 취지에서 진각종의 종책 방침인 새불교 운동의 취지에 맞춰 올해는 37개의 종책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사진>는 1월 24일 하월곡동 총인원 4층 회의실서 '2019년 신년 종책안' 을 발표하는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문화 · 포교 · 교육 · 복지 등 37개 과제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회성 정사는 "우선 현대적인 불교에 걸맞는 교법을 위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신문명을 이끄는 데 바탕을 둔 포교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교구 및 각 심인당의 교화역량 강화에 치중하면서, 국제 교화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성 정사는 문화 부문의 과제도 언급했다.

"진각종이 밀교종단이어서 밀교의 복원 쪽으로 문화사업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밀교문화 전승을 위해, 2층에 문화 전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밀교문화 사업을 펼쳤는데, 올해 3월 말로 모두 끝납니다. 전자, 학술 등 많은 자료들이 완비됐죠. 올해는 우리나라서 단절된 전통 밀교 의식 중에 두 가지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문두루법을 복원 전시했습니다. 이 문두루비법은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관정경)〉에 설해진 밀교 작법인데, 〈삼국유사〉에는 신라 명랑법사가 다섯 방위에 신상을 세우고 12명의 승려와 비법을 행했고, 그 신이로 당군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밀교 작법입니다. 아울러 밀교의 기도 의식인 호마법도 복원할 생각입니다. 고려시대에도 호마법이 있었는데 밀교가 단절되는 바람에 사라졌습니다. 진각종서 다시 호마법을 재현하고자 여러 의식 관련 자료들을 모을 것입니다."

회성 정사는 교육 분야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올해는 스리랑카와 네팔의 교육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포교소가 있는 국제학교에 자본을 들여서 교육의 메카로 키울 예정이고, 네팔은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유치원과 법당 설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내적으로는 승려 교육 다양화를 위한 승려연수 등도 많이 실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성 정사는 남북불교 교류에 대한 속내도 털어놨다. "지난해 10월 중국서 조불련 위원장을 만났죠. 남북불교 교류의 핵심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맞춰 도와주고, 사찰 복원을 해주어 불교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계사, 영통사가 그 좋은 예이죠. 앞으로 남북관계가 정치적으로 더 좋아지면 다시 만나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편 진각종은 30년 전에 제작된 〈진각교전〉의 수정 보완을 거쳐 올 연말 재 발간할 계획이며, 현 시대에 맞는 의식도 재정비 할 예정이다. 또한 40~50년 된 도심 심인당 정비와 함께 위성 도시 4~5곳에 심인당 신설도 추진 중이다. 2년마다 펼치는 서원가(찬불가) 사업에도 역시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국대 총장 예비후보 소견 발표 현장 A3 | 동국대 19대 총장 예비후보에게 듣는다 A4~5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Dongbang Buddhist College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전형일정 〔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8. 12. 17(월) ~ 2019. 02. 08(금)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9. 02. 14(목)	개별통지(www.dongbang.org)
합격자 발표	2019. 02. 20(수)	개별통지(www.dongbang.org)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특 전 1)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 시 선덕 법계 품수 2)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이 사교, 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 모든 학과 공통 〕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⑤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⑥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⑦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제출방법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접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Tel 02) 745-2030 / 교학과장 010-7236-0900

교육비 안내

전형료 5만원 | 입학금 20만원 | 등록금 학기 당 100만원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 (사간동112) | 우 03062

www.dongbang.org
Tel 02) 745-2030
010-7236-0900
Fax 02) 739-3470